

# 현대중국어 사역이동구문 초탐

鄭池秀\*

## <목 차>

1. 연구의 필요성
2. 사역이동구문에 관한 기존 연구
3. 사역사건 틀에서 본 사역이동구문
4. 이동사건 틀에서 본 사역이동구문
5. 사역이동구문의 독립적 틀
6. 맺음말

## 1. 연구의 필요성

사람이나 물체 등의 위치변화를 나타내는 구문을 ‘이동사건구문(motion event construction)’이라고 한다. 이동사건구문에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부류의 이동을 확인할 수 있다.<sup>1)</sup>

- (1) a. 他從樹上爬下來了。 (자력 이동)  
그는 나무 위에서 내려왔다.
- b. 從山坡上滾下來一塊石頭。 (물체 이동)  
산비탈에서 돌 하나가 굴러왔다.
- c. 他把槍放下來了。 (사역 이동)  
그는 총을 내려놓았다.

\* 신구대학교 강사.

1) 분류방법은 Radden & Dirven(2007/2009:426)에서 가져온 것이다.

(1a)와 같은 부류는 이동사건구문의 가장 전형적인 예로, ‘他’는 이동체이자 이동을 유발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행위자이고, 문장 주어로 실현되고 있다. (1b)는 이동체가 ‘石頭’이며, 이동을 유발하는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 (1c)에서 이동체는 ‘槍’이며, 총의 이동을 유발한 행위자인 ‘他’는 주어로 실현되었다. 이동의 관점에서 볼 때 ‘사역 이동’이라는 용어는 마치 사역구문의 형식을 이루고 있는 이동사건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기도 한데, Moreno(2004)에서는 대신 ‘induced movement(유도된 이동)’<sup>2)</sup>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현대중국어 사역이동구문에 대한 연구는 2000년대 들어 산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대부분이 영어의 사역이동구문에 관한 Goldberg(1995)의 연구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

영어에서 아래 예문 (2)와 같은 구문들을 ‘사역이동구문(caused-motion construction, 혹은 causative motion construction, 致使移動構式)’이라고 한다.

- (2) a. They laughed the poor guy out of the room.  
그들이 그 가난한 사내를 비웃어서 방 바깥으로 쫓아냈다.
- b. Frank sneezed the tissue off the table.  
프랭크가 재채기를 해서 휴지가 탁자에서 떨어졌다.
- c. Mary urged Bill into the house.  
메리가 빌을 집 안으로 들어가게 재촉했다.
- d. Sue let the water out of the bathtub.  
수는 물을 욕조 바깥으로 내보냈다.
- e. Sue helped him into the car.  
수는 그가 차 안으로 들어가게 도왔다.
- f. They sprayed paint onto the wall.  
그들은 벽에 페인트를 뿌렸다.

(Goldberg 1995/2004:252)

www.kci.go.kr

2) 이동사건을 다루는 연구에서는 ‘이동’을 ‘motion’ 혹은 ‘movement’로 표현하고 있으나, ‘motion’이 좀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Goldberg에 따르면 이와 같은 사역이동구문의 기본적 개념구조는 'X CAUSES Y to MOVE Z(X가 Y로 하여금 Z로 이동하도록 하다)'로 표상되며 (Goldberg 1995/2004:23, 252), 이러한 기본적, 원형적 개념구조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사역이동구문이라는 범주를 구성하고 있다.

영어의 사역이동구문은 구문을 구성하는 동사의 특수성 문제나 사역성 문제, 상 문제 등으로 인해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 왔다. 특히 Goldberg(1995)가 이 구문에 대해 상세한 분석을 수행한 이후 여러 학자들이 구문으로서의 사역이동구문에 관하여 연구해왔다. 하지만 중국어에 있어서는 구문으로서의 사역이동구문에 대한 독립적, 체계적 연구는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陳俊芳 2010 참조)

또한 중국어 사역이동구문에 대한 연구에서는 주로 영어의 사역이동구문을 기준으로 삼아 몇 가지 형식적 분류를 제시하고는 있으나, 형식 분류 이외에 이 구문의 개별적 특성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이동사건으로서의 사역이동구문에 관한 분석은 미진하다. 또한 사역이동구문에서 핵심이 되는 사역이동동사(혹은 대상이동동사라고도 불림)에 대한 분석도 많지 않다.<sup>3)</sup> 따라서 본고에서는 현대중국어 사역이동구문에 관한 기존 논의를 살펴보고, 아울러 사역문의 관점, 그리고 이동사건의 관점에서 사역이동구문의 특성을 짚어봄으로써 이를 통해 사역이동구문만이 갖는 특징에 대한 기초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 2. 사역이동구문에 관한 기존 연구

'사역이동'은 1980년대 Talmy의 이동사건 연구에서도 이미 언급되었으며, '사역이동구문'은 Goldberg(1995)의 연구 이후 특히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는

3)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 일별은 제2장 참조.

데, 그는 사역이동을 독립적 구문으로 간주하고, 영어를 예로 들어 사역이동구문의 특성에 관해 분석하였다. 또한 Radden & Dirven(2007/2009:436-457)에서는 힘역학(force-dynamic) 세계에 속하는 상황을 네 가지 도식(행동도식, 자력이동도식, 사역이동도식, 전이도식)으로 나누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사역이동도식(caused-motion schema)이다.<sup>4)</sup> 이처럼 서양 언어학계에서는 사역이동구문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본격적 연구가 수십 년 전부터 존재해왔으나, 현대중국어에서의 사역이동구문 연구는 비교적 늦게 시작되었고, 논문도 많지 않다.

현대중국어에서 사역이동을 본격적으로 다룬 논문은 그리 많지 않으며, 張輝(2004), 潘艷艷·張輝(2005), 王桂林(2006), 陳俊芳(2009, 2011)은 주로 Goldberg(1995)의 논의에 기반하여 영어와 중국어의 사역이동구문을 대조분석하였고, 陳俊芳(2010)도 역시 Goldberg(1995)의 분석법에 따라 중국어 사역이동구문의 형식적, 의미적 특징을 연구하였으며, 吳建偉·張曉輝(2010), 趙燕華(2011)는 사역이동사건의 관점에서 ‘把’자문을 연구하였다.

‘사역이동구문’이라는 명칭을 보면 마치 이 구문이 단순히 ‘사역문+이동구문’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이 구문에 대한 구체적 정의는 어떻게 내려지는지 보자. 김동환(2001)은 “사역이동 구문이란 행위자가 어떤 행동을 해서 피해자를 특정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하는 NP1 V NP2 PP와 같은 통사구문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이 때 행위자의 어떤 행동이 피해자의 이동을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사역’의 개념이, 유발되는 것이 피해자의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이동’의 개념이 파악된다. 또한 김경학(1999:53)의 정의를 보면, 사역이동구문은 “동사에 의해 나타난 행동이 원인이 되어서 그 동사의 논항이 경로(path)인 목표의 장소로 이동되어 완전히 장소이동이 완료된 구문”으로, V가 원인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원인’이나 ‘장소이동의 완료’라는 측면에서도 역시 ‘사역’과 ‘이동’의 개념이 파악될

4) 역서에서는 ‘유발된 이동도식’으로 번역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사역이동도식으로 번역한다.

수 있다. 물론 이 두 가지 정의는 모두 영어의 사역이동구문에 관한 것이어서, 중국어의 사역이동구문에서도 이와 같은 정의가 이 구문의 핵심 구성원이 갖는 특징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역이동이라는 기본적 개념은 개별 언어를 뛰어 넘는 보편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구현하는 방식은 언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어 사역이동구문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영어의 사역이동구문을 참조로 삼아 공통점을 찾는 것에서 시작하여 개별성을 파악하고, 중국어만의 고유한 특성을 분석하는 것으로 점차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oldberg(1995:161-162)에서는 사역이동구문을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로 나누었다.

(3) 영어 사역이동구문의 다섯 가지 유형

a. X CAUSES Y to MOVE Z(X는 Y가 Z로 이동하도록 야기함)

예 : Frank **pushed** it into the box.

b. Conditions of satisfaction associated with the act denoted by the predicate entail : X CAUSES Y to MOVE Z(술어가 가리키는 활동과 연관된 만족조건이 X CAUSES Y to MOVE Z를 함의(entail)하는 경우)

예 : Sam **ordered** him out of the house.

c. X ENABLES Y to MOVE Z(X는 Y가 Z로 이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

예 : Sam **allowed** Bob out of the room.

d. X PREVENTS Y from MOVING Comp(Z)(X는 Y가 Z 이외의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함)

예 : Harry **locked** Joe into the bathroom.

e. X HELPS Y to MOVE Z(X는 Y가 Z로 이동하도록 도움)

예 : Sam **helped** him into the car.

潘艷艷·張輝(2005)는 이와 같은 영어의 다섯 가지 사역이동구문 의미유형에 상응하는 예를 직접 대입하는 방식으로 중국어 사역이동구문의 예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4) 중국어 사역이동구문의 다섯 가지 유형

- a. X는 Y가 Z로 이동하도록 야기함:  
 杰克把書硬塞進了紙箱裏。  
 책은 책을 종이 상자 안에 억지로 쑤셔 넣었다.
- b. 술어가 가리키는 활동과 연관된 만족조건이 X CAUSES Y to MOVE Z를 함의(entail)하는 경우  
 約翰哄騙那個小孩進了房間。  
 존은 그 꼬마를 (거짓말로) 속여 방에 들어가게 했다.
- c. X는 Y가 Z로부터 이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  
 她讓他從房間出去了。  
 그녀는 그를 방 안에서 내보냈다.
- d. X는 Y가 Z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지 못하게 함  
 杰克把那個人攔在了門外。  
 책은 그 사람이 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았다.(문 밖에 있도록 함)
- e. X는 Y가 Z로 이동하도록 도움  
 愛米麗引導他穿過花園。  
 에밀리는 그가 화원을 지나가도록 안내했다.

하지만 영어의 사역문과 중국어의 사역문이 상이하고, 이동사건을 구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단순히 영어 이동구문의 다섯 가지 부류에 대입시키는 것만으로는 중국어 사역이동구문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또한 Goldberg가 제시한 다섯 가지 의미 가운데 네 번째 부류는 이동을 유발하지 않아 이동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역이동구문의 의미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김동환 2001), 이를 사역이동구문에 포함시킨다고 하여도 (4d)가 과연 'X는 Y가 Z 이외의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함'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sup>5)</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潘艷艷·張輝(2005)는 Goldberg의 분석틀을 비판 없이 수용하였다는 점에서, 중국어에 대한 분석의 결과 역시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더욱이 이들의 연구는 중국어의 사역이동구문을 이루는 '형식적

www.kci.go.kr

5) (4d)에 제시된 예문의 의미는 'Z 이외의 곳으로의 이동을 막다'보다는 'Z에 위치하도록 고정시킴', 'Z에 무뎠게 함'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개괄하는 것이 더욱 타당해 보인다.

들'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陳俊芳(2010)은 潘艷艷·張輝(2005)의 연구방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중국어에서 사역이동사건을 나타낼 수 있는 구문으로 아래와 같은 여섯 가지 형식적 틀을 제시하였다.

### 1. '把'구문

1) NP1+把+NP2+V+C

許多學生把紙扔在地上。

많은 학생들이 종이를 바닥에 던져버렸다.

2) NP1+把+NP2+PP+VP

他把他兄弟從床上拉起來。

그는 그의 형제를 침대에서 잡아 당겨 일으켰다.

3) NP1+PP+把+NP2+VP

他經常從柵欄上把蘋果扔過去。

그는 늘상 울타리 위에서 사과를 던져 보냈다.

4) NP1+把+NP2+VP

咱們把家裏的所有破舊東西扔掉吧!

우리 집안의 낡은 물건들을 모조리 다 버려 버리자!

### 2. 動結구문

1) NP1+PP+VP+NP2

那男孩朝我扔了一塊石頭。

남자는 나를 향해 돌맹이를 하나 던졌다.

2) NP1+ VP+ NP2

他眨掉了落入眼睛裏的東西。

그는 눈을 깜빡거리서 눈 안에 들어간 것을 빼냈다.

### 3. 使令구문

1) NP1+VP1+NP2+VP2+PP

輕柔的鋼琴曲帶着我們翩跹於大廳之中。

부드러운 피아노곡이 우리를 로비에서 너풀너풀 춤추게 했다.

2) NP1+VP1+NP2+VP2+NP3

他們的父親命令他們回自己的房子。

그들의 아버지는 그들에게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했다.

3) NP1+VP1+NP2+PP+VP2

他熟練地帶着她在地板上旋轉。

그는 익숙하게 그녀들을 데리고서 마루 위를 돌았다.

4) NP1+ VP1+ NP2+ VP2

我盡量勸他不要來。

나는 그에게 오지 말라고 극구 만류했다.

4. '使'구문

1) NP1+使+NP2+VP+NP3

使孩子離開貧苦環境。

아이들로 하여금 빈곤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하다.

2) NP1+使+NP2+VP+PP

使路延伸至山地。

길을 산까지 연장하다.

3) NP1+使+NP2+PP+VP

地震使牆向左傾斜。

지진이 담장을 왼쪽으로 기울게 하다.

4) NP1+使+NP2+VP

颱風使海面波濤洶湧。

태풍이 바다 위의 파도를 솟구치게 하다.

5. '得'구문

1) NP1+VP1+得+C (NP2+ VP2)

他們笑得她走出了屋子。

그들은 그녀가 집에서 떠나가버리도록 웃어댔다.

2) NP1+VP+V+得+C (NP2+ VP2)

他打呵欠打得下巴關節脫了臼。

그는 아래턱이 빠져버리도록 하품을 해댔다.

6. 連動구문

1) NP1+ VP1+ PP+ VP2

他舉起書朝我扔來。

그는 책을 들어 나를 향해 던졌다.

## 2) NP1+ VP1+ VP2+ NP2

她駕機環游世界。

그녀는 비행기를 몰고 세계를 일주했다.

(이상 陳俊芳 2010:97-98에서 인용)

아울러 이 중 '把'구문을 사역이동사건을 나타내는 가장 원형적인 구문으로 간주하였고, 나머지 구문은 비원형적 구문으로 보았다. 또한 Goldberg(1995)의 연구를 참고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사역이동구문의 관련의미범주를 도식화하였다.

陳俊芳(2010)의 분석은 영어와의 대응 관계를 통한 분석에서 더 나아가 중국어 사역이동구문 고유의 의미에 대해 분석하고, 형식적 틀까지 제시하였다는 점에 있어서 돋보인다. 하지만 그녀의 분석에도 적잖은 문제가 드러나는데, 여전히 Goldberg(1995)의 분석에서 벗어나지 못한 연역적 접근법을 고수하고 있어서 이것이 과연 중국어 사역이동구문의 실제 모습을 얼마나 잘 묘사하고, 설명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또한 구문의 형식적·의미적 특징과 술어동사의 형식적·의미적 특징 간에 어떠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분석이 여전히 미진한 상태이다.

또한 사역이동구문의 원형적 구성원이라 간주되는 '把'자문의 경우 행위자 주어가 원형적 주어인 반면, 사역이동구문의 주변적 구성원인 '使'자문이나 '得'자문의 주어는 '把'자문과 상반되게 NP성분이 아닌 경우가 오히려 더 원형적 주어이다. 이러한 점에서 사역이동구문의 각 형식 간의 관련성과 차이점은 더 면밀히 검토되어야 한다.<sup>6)</sup> 아울러 陳俊芳의 분석에서는 이상과 같은 여섯 가지 구문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무엇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인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앞서 潘艷艷·張輝(2005)와 마찬가지로 사역이동동사에 대한 분석이나 이동사건들에서 본 사역이동구문의 특성 등의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

6) '把'자문과 '使'자문의 주어 문제, '得'자문의 주어 문제에 대해서는 조경환(2010), 최규발·정지수(2011)참조.

이처럼 기존의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갖고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 문제로 볼 수 있다. 가장 먼저 사역이동구문 연구에서 일종의 기준이 되고 있는 Goldberg(1995)의 경우, 사역 문제에서 출발하여 결과 사역, 사역 이동 두 가지를 나누고, 사역이동의 독립성에 대해 논의하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동사건들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 반면 이동사건 연구의 기준이 되고 있는 Talmy(1985, 2000)는 이동을 나타내는 여러 구문(자력이동, 물체이동, 사역이동)들 간의 차이점이나 특히 사역이동 문제에 대해서는 따로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사역이동구문의 독립성이 간과되었다.

중국의 사역이동구문 연구는 주로 Goldberg(1995)의 영향을 받았기에 Goldberg(1995)가 갖는 한계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동사건들의 관점에서 사역이동구문이 갖는 특성에 관해 깊이 있게 연구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영어와의 대조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중국어 사역구문의 특수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명확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역이동구문은 비록 사역적 특성과 이동적 특성을 모두 갖지만, 사역이동구문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사역의 틀 내에서만 분석하거나 이동의 틀 내에서만 분석해서는 안 된다.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간과하였기 때문에 ‘把’자문의 기본의미를 ‘사역’이라고 분석하거나(예를 들어 葉向陽 2004), 단순히 ‘이동구문’이라고 보기도 한 것이다.(예를 들어 張伯江 2000 등)

### 3. 사역사건 틀에서 본 사역이동구문

사역의 개념과 이동의 개념을 좀 더 정밀화하여 이 구문을 분석하여 본다면,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사역문에서 이동을 유발하는 힘의 근원이나 유발 방식은 반드시 주요술어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또한 이동사건 구문에서는 이동사건들의 여러 가지 구성요소들이 상이하게 배합되면서 서로 다른 이동사건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사역이동구문을 하나의 원형범주로 보고 범주 내의 다양한 구성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역 문제와 이동 문제를 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역문은 원인(cause)과 결과(result), 혹은 원인사건과 결과사건의 복합으로 이루어진 구문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사역이동구문은 '결과 혹은 결과 사건이 이동으로 구현된 것'이다. 또한 이동사건은 앞서 말한 것처럼 사람이나 물체의 위치변화를 나타내는 구문을 말하는데, 이동사건의 관점에서 사역이동구문은 '이동의 원인 혹은 동력'이 이동체가 아닌 다른 사람이나 물체, 더 넓게는 다른 사건으로부터 온 이동사건을 나타낸 문장을 말한다.

본 장에서는 먼저 사역틀에서 사역이동구문을 살펴보겠다.

사역문에 대한 다양한 분류가 존재하지만,<sup>7)</sup> 그 중에서도 형식표지 유무, 참여자 수, 사역자의 특성, 피사역자의 특성, 행위성과 결과성을 중심으로 사역이동구문의 특성을 살펴보겠다.

먼저 사역 표지 유무를 놓고 볼 때, 앞서 陳俊芳(2010)의 분석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역이동구문은 통사적 표지를 취할 수도 있고, 취하지 않을 수도 있다.

(5) a. 桌上, 不知誰放了一塑料袋落花生。

b. 你看, 這是敵人的崗樓, 上下都有噴着火的槍眼, 我們的戰士冒着炮火, 登着用木棍搭成的梯子, 往崗樓里扔手榴彈, 可是身下的槍眼依然在打槍。 보세요, 여기는 적의 초소인데, 위아래로 모두 총구가 불을 내뿜고 있는데, 우리의 전사가 포화를 뚫고 나무 막대기로 세워 놓은 계단을 올라 초소 안으로 수류탄을 던지면서도 아래로 향한 총구로는 계속 총을 쏘아 댔지요.

(6) a. 他順手把兩隻甲魚扔在甲板上。

그는 곧바로 자라 두 마리를 갑판 위에 내던져버렸다.

b. 的確, 英國從60年代研究傳播學開始時, 就認為美國傳播學研究的結果“已

7) 사역문의 여러 가지 분류방식에 대한 정리는 이수진(2011) 참고.

使他們走進了死胡同而找不到明确的出路”。

분명, 영국은 60년대에 미디어학 연구가 시작될 때부터 미국의 미디어학 연구의 결과가 “이미 사람들로 하여금 막다른 길로 들어서게 하여 확실한 출구를 찾지 못하게 했다.”고 보았다.

(이상 cncorpus)<sup>8)</sup>

사역이동구문의 참여자 수는 2 혹은 3이 되는데, 참여자 수가 2일 경우 사역자와 피사역자(이동체)이며, 3일 경우 사역자, 피사역자(이동체), 그리고 장소(location, 기점과 착점 포함) 혹은 경로(path) 논항이 출현한다. 전체 사역문을 놓고 볼 때 참여자가 3인 경우 사역자와 피사역자 이외에도 다양한 의미를 가진 참여자가 출현할 수 있으나, 사역이동구문은 장소와 경로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하겠다.

- (7) a. 我跟于晶說, 一邊把紙餐巾扔到一邊, 抓起桌上的烤麵包往嘴裏塞。  
나는 위징에게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종이 냅킨을 한쪽으로 던지고 식탁 위의 식빵을 입 안으로 쭈셔 넣었다.(착점을 나타내는 전치사구)  
(CCL)<sup>9)</sup>
- b. 故在廣大的房間裏, 木的几桌旁邊放了藤椅子(착점을 나타내는 장소명사구)  
(cncorpus)  
그래서 넓은 방 안, 나무 차탁 옆에 등나무 의자를 놓았다
- c. 在濁浪排空的江面上, 他們救起了一艘機舵失靈、隨水飄流的船隻, 使70多名驚恐不安的群眾脫離險境。(기점을 나타내는 장소명사구)  
시커먼 물결이 하늘로 솟구치는 강물 위에서, 그들은 방향타가 고장이 나서 강물을 따라 흘러가는 배 한 척을 구조해 공포에 떨고 있는 70여명의 군중을 위험에서 구해냈다.  
(cncorpus)

다음으로 사역자와 피사역자의 특성, 행위성과 결과성 문제를 함께 살펴보겠다.

아래 예문(8)에서와 같이 사역표지 없이 사역이동동사가 술어를 이루는 경



8) 國家語委現代漢語語料庫의 자료이며, 간략히 ‘cncorpus’로 표시하였다.

9) 北京大學語言學研究中心現代漢語語料庫의 자료이며 ‘CCL’로 간략히 표기하였다.

우나 표지 ‘把’를 가지는 경우, 사역이동구문은 주로 구체적 행위 동작을 나타내는 사역이동동사가 술어를 이루기 때문에 사람이 원형적 사역자로 출현한다.

- (8) a. 1927年, 他參加進步學生活動, 和學友們上街貼標語, 反對日本帝國主義製造濟南慘案, 被校方開除學籍。

1927년, 그가 진보 학생운동에 참가하면서, 학우들과 함께 거리에 나가 표어를 붙이고, 일본제국주의가 일으킨 지난(濟南) 학살사건에 항의하여, 학교 측에 의해 학적을 말소당했다.

- b. 她欣賞着壁畫, 又走到書柜前, 取出一疊芸芸的“作品”, 選了幾張用膠布把它們貼在牆上

그녀는 벽화를 감상하면서 책장 앞으로 걸어가 수북하게 쌓여 있는 ‘작품’들을 꺼내 몇 장 고른 다음 테이프로 그것들을 벽에 붙였다.

(이상 cncorpus)

그러나 ‘使’를 취한 사역이동구문의 경우 사건을 원형적 주어로 가지는 ‘使’자문의 특성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 (9) 毛澤東同志和親密戰友周恩來、劉少奇、朱德等老一輩無產階級革命家的相繼逝世, 曾經使全黨同志和全國各族人民陷入深深的悲痛。

마오쩌둥 동지와 절친한 전우 저우언라이, 류사오치, 주더 등 구세대 무산 계급혁명가들이 연이어 별세하면서 과거 전체 당원 동지들과 전국 각 민족 인민들이 깊은 슬픔에 빠졌었다.

(cn corpus)

사역문 중 유표지 사역문<sup>10)</sup>의 대표적 구성원인 ‘使’자문은 사건을 원형적 주어로 가지며, 사람을 원형적 빈어로 가지는데 반해, 사역이동구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식의 유표지 사역이동구문인 ‘把’자문의 경우 사람을 원형적 주어로, 사물을 원형적 빈어로 가진다(조경환 2010 참조).

먼저 ‘使’자문의 사건의미를 간단히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0) 유표지 사역문은 ‘使’, ‘把’, ‘讓’, ‘叫’ 등의 통사적 사역표지를 갖는 사역문을 말한다.

(10) [DO(x)] CAUSE [BECOME(y)]<sup>11)</sup>

위의 (10)은 다음과 같은 문장을 써서 구체적으로 예시화할 수 있다.

- (11) 後來，人們又發明了木活字和金屬活字，使活字印刷得到了改進。  
 이후에, 사람들이 또 다시 목판활자와 금속활자를 발명하였고, (이는) 활  
 자인쇄를 더욱 발전시켰다. (CCL)

(11)은 ‘使’가 사용된 사역문으로, ‘人們又發明了木活字和金屬活字’가 사역 결과를 이끄는 원인 사건(즉 DO(x)로 표상되는 부분)이며, ‘使’는 CAUSE의 사건의미를 나타내고, ‘活字印刷得到了改進’이 BECOME(y)로 표상되는 결과사건이다. 이 때 결과(活字印刷得到了改進)에 이동이 포함되지 않는다. 위의 (10)과 같은 DO, CAUSE, BECOME이라는 기초술어(primitive predicate)를 포함하는 구조는 일반적으로 완수동사가 갖는 어휘상적 구조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완수동사의 경우 어휘적 의미가 DO를 동시에 표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문적으로 CAUSE를 표시하는 ‘使’가 존재하는 ‘使’자문과 차이가 난다.

다음으로 결과사건에 이동을 포함하는 ‘使’자문을 보자.

- (12) 還有一種是利用磁的同性相斥的原理，使車體懸浮起來。  
 또 한 가지는 자석이 동일한 극끼리 상호 배척하는 원리를 활용하여 차체를 매달린 채로 떠오르게 하는 것이다. (CCL)

(12)는 사역표지 ‘使’가 사용되면서 결과(‘車體懸浮起來’)에 이동이 포함되는 문장으로, ‘차체가 매달린 채로 떠오르는 것’(이동)은 바로 ‘자석의 동일한 극이 상호 배척하는 원리’(이동의 원인)에 의한 것이다.

11) 이 때 DO(x)는 동사가 갖는 논항구조에 따라 DO(x, y)로도 표시될 수 있다. 또한 BECOME 역시 BECOME(y) 혹은 BECOME(y, z)로도 표시될 수 있으며, 결과상태를 나타내는 술어성분이 출현하는 경우 BECOME(S(y)) 혹은 BECOME(S(y, z)) 등과 같이 나타날 수도 있다(Dowty 1979:123-125, 김경학 2002:36 참조).

이는 직접적으로 사역이동을 나타내는 사역이동동사(‘放’, ‘扔’, ‘投’ 등)가 가지는 아래와 같은 논리구조와도 차이가 난다.

(13) [do'(x, ∅)] CAUSE [BECOME be-LOC'(z, y)]<sup>12)</sup>

(Moreno 2004:36)

이 때 사역이동동사는 어휘적으로 do'의 의미를 나타내며, 대상논항의 위치를 be-LOC'하게(BECOME) 만든다(CAUSE). 아울러 행위자로서의 사역자, 대상으로서의 피사역자를 논항으로 가지고 있고, 결과(위치변화)는 함의된다.<sup>13)</sup> 그러나 사역이동동사가 구성하는 문장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논리구조의 모든 요소가 항상 동시에 다 구현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 a. 她把一杯開水放在戰士面前, (……생략)

행위자 대상 放 在-Loc

그녀는 끓인 물을 전사 앞에 갖다 놓고는,

b. 孩子們也躺下去, 頭放在枕上。

행위자 VP1 대상 放 在-Loc

아이들도 누워 머리를 베개에 누였다.

c. 同志, 謝謝, 謝謝, 碗筷就放在桌子上吧

행위자 대상 放 在-Loc

동지, 고마워, 고마워, 그릇과 젓가락은 식탁 위에 놓아 줘.

d. 乳黃色的寫字臺上, 放了這盆婷婷玉立的文竹, 確是既淡雅, 又有文彩。

Loc 放-了 대상

엷은 노란 색의 사무용 책상 위에 예쁘고 매끈한 이 아스파라거스 플루 모서스 화분을 놓으니, 확실히 우아하고도 산뜻했다.

12) 여기서 do'나 be-LOC'의 프라임(') 표시는 대상 언어의 표현이 나타내는 의미를 표시한다.(문귀선 1995:11)

13) 사역이동동사가 나타내는 이동의 결과성은 항상 외현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Moreno(2004) 참조.

e. 不能啥呀, 稱在這放着呢!

대상 在-Loc 放-着

아무 것도 안 돼. 저울이 여기 놓여 있잖아.

(이상 cncorpus)

유표지사역문의 대표적인 '使'자문과 '把'자문에서는 CAUSE가 필수적 요소이며 결과성이 강한 특징을 가진다.<sup>14)</sup> 하지만 사역이동구문의 경우 결과를 반드시 부호화하지 않고 주어의 행위성만 강조되는 사역이동구문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볼 때, 사역이동구문은 사역문과 다른 틀에서 분석될 필요성이 제기된다(앞의 각주 13 참조). 그런데 '使'자문과 '把'자문이 모두 결과성이 강하지만, '把'자문은 주로 행위자를 사역자로 가지는 반면, '使'자문은 주로 비행위자를 사역자로 가진다는 점에서 행위성에 차이가 난다. 무표지 사역이동구문에서 원형적 술어인 사역이동동사 역시 행위자를 사역자로 가지므로 사역이동구문은 강한 행위자성을 원형적 특성으로 가진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sup>15)</sup>

14) 사역문에 대한 분류에서 Comrie(1989)는 세 가지 의미적 변수(semantic parameter)를 제시하였는데, 하나는 간접사역과 직접사역, 또 하나는 피사역자에 의해 거시사건에 남겨지는 통제성,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참사역(true causation)과 허가(permission)이다. 유표지 사역 중 '致使'를 나타내는 '使'나 '把'는 결과성을 보장하는 참사역이며, '使'를 나타내는 '讓', '叫'는 결과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면에서 허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수진(2011:227 각주 6)은 전자를 결과사역, 후자를 행위사역으로 칭하였다. 하지만 '把'자문은 결과성 뿐만 아니라 행위자성도 강하게 드러나므로 결과사역과 행위사역이라는 용어의 사용으로 참사역과 허가라는 두 부류를 명확히 구분 지을 수는 없다 하겠다.

15) Comrie(1989)나 Lakoff(1987:54-55)는 교차언어적으로 볼 때 원형적 사역자는 행위자성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使'자문의 사역자는 비원형적이며, '把'자문은 오히려 원형적이고, 사역이동구문은 행위자성이 강한 주어를 가지므로 사역문의 원형적 사역자에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다만 본고에서는 '把'자문이 전문적 사역이동구문 표지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사역이동을 전문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또 다른 표지인 '使'와의 대조에 주안점을 두고 서술하였다.

## 4. 이동사건 틀에서 본 사역이동구문

이동사건의 분석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Talmy(1985)의 이동사건 틀을 통해 사역이동구문을 분석해보자. Talmy(1985)는 <전경>, <배경>, <경로>, <이동>, <방식>, <원인>의 여섯 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전경> : 이동체

<배경> : 전경의 이동과 관련된 참조점 대상

<경로> : 배경과 관련하여 전경이 따라가는 진로

<이동> : 이동의 존재

<방식> : 이동을 실행하는 수단이나 양태

<원인> : 이동을 발생시키는 외적 요인

(이상 임지룡 2000:25에서 재인용)

이 중 <전경>, <배경>, <경로>는 이동사건의 내부요소(internal component)이며, <방식>과 <원인>은 외부요소(external component)로 간주된다.

<표1> Talmy(1985:61) 이동사건 구성요소의 구현 예

	Manner	Cause
motion	The pencil rolled off the table. 연필이 탁자 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The pencil blew off the table. 연필이 (바람에) 날려 탁자 아래로 떨어졌다.
location	The pencil lay on the table. 연필이 탁자 위에 놓여 있다.	The pencil stuck on (to) the table(after I glued it). (내가 그걸 붙여 놓아서) 연필이 탁자에 붙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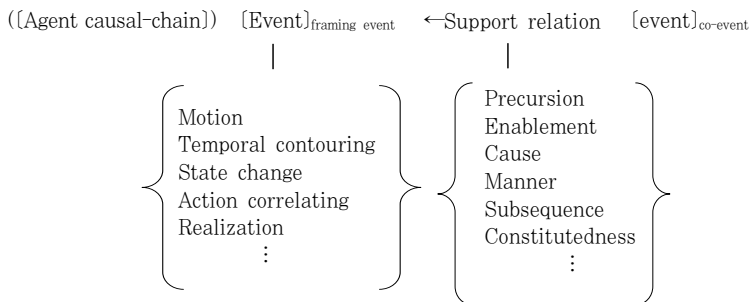
'pencil'은 전경, 'table'은 배경, 'off'와 'on'은 경로(좀 더 상세히 말하자면 각각 경로와 지점(site))를 가리키며, 위의 두 문장에서 동사는 이동(motion)

을, 아래 두 문장에서는 장소(location)를 나타낸다. 더불어 'rolled'와 'lay'에는 방식도 함께 나타나며, blew와 stuck에는 원인이 함께 나타난다(Talmy 1985:61).

이 중 사역이동구문과 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요소는 <원인>이다. 이동을 유발하는 사건이나 행위가 외부에서 온 것임을 나타내는 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사역이동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그것이 바로 <원인>요소와 관련되어 있다. 하지만 위의 두 문장 "The pencil blew off the table."과 "The pencil stuck on (to) the table(after I glued it)."는 이동의 <원인>요소는 갖고 있지만, 그 원인사건을 유발한 진정한 원인, 즉 사역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사역이동구문의 조건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Talmy(2000)에서는 이러한 틀을 조금 더 상세하게 나누었는데, 복합사건을 거시-사건(macro-event)로 보고, 이동사건을 예로 하여 사건들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그림2> Talmy(2000)의 거시-사건의 개념구조



위에서 보듯, 거시사건은 틀 사건과 공동사건으로 구성되는데, 이 때 이동은 틀 사건에 포함되고, 원인과 방식은 공동사건에 포함된다.

아울러 이러한 틀에 맞추어 <방식>과 <원인>을 포함하는 이동사건을 비행위자성, 행위자성 두 가지로 나누어 각각 살펴보았다.

## (15) 비행위자성 문장

i. Support relation : Manner

(the bottle MOVED into the cave) WITH-THE\_MANNER-OF (it floated)

영어 : The bottle floated into the cave.

병이 동굴 속으로 둥둥 떠 들어갔다.

ii. Support relation : Cause

(the bone MOVED out from its socket) WITH-THE\_CAUSE-OF  
[(something pulled on it)]

영어 : The bone pulled out of its socket.

뼈가 구멍에서 당겨져 나왔다.

## (16) 행위자성 문장

i. Support relation : Manner

(I AMOVED the keg out of the storeroom) WITH-THE-MANNER-OF (I  
rolled it)

영어 : I rolled the keg out of the storeroom.

나는 나무통을 굴려서 저장고에서 꺼냈다.

ii. Support relation : Cause

(I MOVED the ball into the box) WITH-THE\_CAUSE-OF (I kicked it)

영어 : I kicked the ball into the box.

나는 공을 상자 안으로 차서 집어넣었다.

행위자가 명시되지 않은 문장("The bottle floated into the cave.", "The bone pulled out of its socket.")의 경우 논문의 서두에서 보았던 물체이동에 해당하며, 행위자가 명시된 문장("I rolled the keg out of the storeroom.", "I kicked the ball into the box.")의 경우 사역적 이동에 해당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의 문장에서 'roll'과 'kick'이 왜 하나는 <방식>으로, 하나는 <원인>으로 분석된 것일까? 이와 같은 Talmy의 분석은 단지 이동체인 'keg'의 운동 방식에만 초점을 맞춘 결과이며, 구문과 상관없이 동사의 기본적 구조가 행위자와 대상을 가지는 타동사인지를, 이동체를 유일한 논항으로 가지는 자동사인지만을 고려하였기에 pull, kick, push 등은 <원인>으로, roll, float 등은 <방식>으로 분류된 것이다. 즉 Talmy(1985, 2000)가 제시한 이동사건 틀 분

석방법도 사역이동구문을 명확히 추려내지 못한다.

사역이동구문의 관점에서 문장을 바라본다면 ‘roll’에는 〈방식〉뿐만 아니라 〈원인〉요소도 함께 들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때 동사만 가지고서는 사역의 의미를 판단할 수 없으며, 전체 인과연쇄를 모두 살펴야만 한다. 이는 거꾸로 ‘kick’에서도 나타나는 문제이다. 다음은 비사역적, 비이동적 의미를 가지는 동사가 사용된 일반 타동구문과 사역이동구문을 비교한 것이다. (Goldberg 1995/2004:253)

(17) a. Joe kicked the wall.

Joe는 벽을 찼다.

b. Joe kicked the dog into the bathroom.

Joe는 개를 욕실로 걷어차 들여보냈다.

단순히 Joe가 벽을 걷어차는 행위는 사역적 해석을 갖지 못하는데, 이는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한 결과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직 결과가 부호화될 때에만 사역의 틀에 들어갈 수 있고,<sup>16)</sup> 그것이 대상의 이동으로 나타날 때 사역이동구문의 틀을 갖출 수 있다.

## 5. 사역이동구문의 독립적 틀

앞서 보았듯이 사역이동구문은 사역문과도 구별되는 차이점을 가지며, 이동사건분석틀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사역이

16) 물론 사역의 결과성 역시 유무로만 판단할 수 없는 연속체를 이루므로, Comrie(1989:171) 역시 참사역이건 허가이건 선행사건(anterior event, 혹은 그 행위자)의 통제성은 모두 존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이러한 통제성의 관점에서 사역이동동사가 술어동사로 사용되는 문장에서 사역의 결과성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도 이 문장을 사역이동문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비사역이동동사가 사역이동구문을 이루는 경우에는 반드시 결과성을 부호화해야 이 구문에 들어갈 수 있다.

동구문을 바라보는 독립적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 5.1 사역이동구문의 주어

현대중국어 이동사건구문에 대한 분류에는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다.

曾傳祿(2009)는 이동의 동력에 따라 이동사건을 ‘自移事件’과 ‘致移事件’ 두 가지로 나누었다. ‘自移事件’은 이동의 동력이 이동체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말하며, ‘致移事件’은 이동체가 수동자로, 이동의 동력은 행위자나 사역자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自移事件’은 다시 이동체의 유정성(animacy)에 따라 ‘無生自移事件’, ‘有生自移事件’의 두 가지로 나누었다.

- (18) a. 他顧不上脫衣服, 撲通跳下水。 (曾傳祿 2009:55)  
그는 옷을 벗을 겨를도 없이 퐁덩하고 물 속으로 뛰어 들었다.
- b. 從渠裏躡上來一個赤臂露胸的漢子。 (曾傳祿 2009:55)  
도랑에서 옷통을 벗은 사내 하나가 뛰어 올라왔다.
- c. 大龍順着斜坡滾下去了。 (曾傳祿 2009:55)  
大龍은 비탈을 따라 굴러 내려갔다.
- d. 時間久了, 皺褶裏就鑽進了各種寄生蟲, 叮咬它的皮膚, 疼癢難忍。(CCL)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주름 속에 각종 기생충이 파고 들어가 그 피부를 물어서 참을 수 없이 가렵다.

(18)의 문장들은 모두 자동이동구문 중의 자력이동구문이다. (18a, c)와 같이 이동체가 문두 주어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18b, d)와 같이 존현문 형식을 취하여 이동체가 술어 뒤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동체가 (18a, b)와 같은 사람(+animate), (+human)인 경우도 있고, (18c, d)와 같은 동물(+animate), [-human)인 경우도 있다.

- (19) a. 岩漿從山上噴下來。  
           마그마가 산 위에서 뿜어져 내려왔다.  
 b. 從窗隙裏透進了青色的微光。  
           창틈으로 푸른색의 옅은 빛이 새어 들어왔다.

(曾傳祿 2009:55)

사역이동구문의 경우 술어동사 앞에 오는 주어 성분이 더욱 다양하다.

- (20) a. 有人曾把一塊鈦片扔進大海, 經過5年以後取出來, 仍然閃閃發亮, 沒有半點銹斑。  
           어떤 이가 티타늄 조각을 바다 속으로 던져 넣었는데, 5년이 지나 꺼내 보니 여전히 번쩍이는 것이 조금도 녹슨 흔적이 없었다.  
 b. 工廠的警衛朝天鳴槍示警, 這才嚇跑了一批批的劫匪。  
           공장의 경비가 허공을 향해 총을 울려 경고하자, 그제서야 도적 무리들이 하나씩 놀라 도망갔다.

(이상 CCL)

자력이동은 스스로 이동체가 되어야 하므로 [+의지성], [+유정성]을 가진 성분만이 주어가 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주로 명사성 성분이 해당되지만, 사역이동구문은 이동체의 이동을 의도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성분뿐만 아니라 의도성과 상관없는 문장이나 절 형식으로 사건을 나타내는 성분들도 원인/사역자 신분으로 주어 자리에 출현할 수 있다.

이와 관련지어, Goldberg(1995/2004)의 관찰을 참고할 만하다. 영어의 사역이동구문에 관한 Goldberg(1995/2004:270)의 분석에서 특이한 점은 사역자논항이 행위자이거나 자연적 힘이어서야 한다고 못 박은 것이다. 중국어 사역이동구문의 경우 원형적 사역자는 행위자이지만, '使'로 구성된 사역이동구문은 사건이 원형적 사역자이어서 중국어 사역이동구문의 사역자는 다양한 구성원을 가진다는 점에서 영어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사역문이라는 틀 안에서는 아래와 같이 이동대상이 주어가 되는 경우를 포함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 (21) 那兩件綿袍都送進當舖去了。 (曾傳祿 2009:49)  
 그 솜 두루마기 두 벌은 모두 전당포에 보내졌다.

하지만 우리는 사역이동동사 ‘送’을 통해 이와 같은 문장을 사역이동구문의 구성원 안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처럼 사역이동구문은 이동을 유발하는 사역자가 이동체에 직접 물리적 힘을 가하는 경우와 원인이 되는 어떤 사건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동체의 이동이 유발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자는 특히 사역이동동사가 사용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후자의 경우 사역문 분석의 틀에서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술어동사의 특징을 통해 사역이동구문을 살펴보고자 한다.

## 5.2 사역이동구문의 술어동사

중국어의 경우 사역이동구문을 구성할 수 있는 동사에는 ‘放’, ‘拿’, ‘投’, ‘貼’ 등과 같은 ‘사역이동동사(causative motion verb, 혹은 ‘대상이동동사(theme movement verb)’라 불리기도 함)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 사역이동동사 안에는 2가동사뿐만 아니라 ‘送’, ‘給’와 같은 부류의 이중목적어동사(ditransitive verb)도 포함되어 있다. 사역이동구문은 일반적으로 대상이동 의미를 내포한 동사로 구성되지만, 다음과 같이 대상이동 의미를 내재적으로 가지지 않는 동사도 이 구문을 구성할 수 있다.

- (22) 突然，一陣風吹散了繚繞的薄霧  
 갑자기, 한 차례 바람이 불어, 피어올라 있는 얇은 안개를 흩어놓았다. (CCL)

www.kci.go.kr

위의 (22)에서 볼 수 있듯이 ‘吹’는 ‘바람이 불다’라는 의미항으로 쓰일 때

1항동사이며, 내재적으로 이동성, 타동성이나 사역성을 갖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사역이동구문의 술어동사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사역이동구문의 대다수는 술어동사가 사역이동동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역이동동사가 구성할 수 있는 문장은 어떠한 형식을 취하며, 어떠한 요소로 구성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國家語委現代漢語語料庫(www.cncorpus.org)’에서 사역이동동사 ‘放’이 술어동사로 사용된 문장을 추출하여 그 구성 형식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였다.

‘放’이 구성하는 사역이동구문의 문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 (a) 주어+把+대상+放+방향보어  
用桶打起糲來，把蓮子放了進去，看蓮子的浮起的程度，就知道糲的質量。  
통에 간수를 길어다가 연밥을 넣고서 연밥이 떠오르는 정도를 보면 간수의 품질을 알 수 있다.
- (b) 주어+把+대상+放+개사구  
政協全國委員會主席鄧穎超出席今天的會議並在會上講了話，強調人民政協要把工作的重點放在重視政治協商方面，要發揚民主。  
정협 전국위원회 주석 덩잉차오는 오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였는데, 인민정협이 업무 중점을 정치협상강화 방면에 두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c) 주어+장소+放+대상  
不知哪個兵在裡邊放了一張床，因此，常有女人來。  
누군지 모를 어느 병사가 안에 침대 하나를 갖다 놓았고, 그래서 늘 여자들이 왔다.
- (d) 주어+放+대상  
炒菜時，他放了許多的油，還放了不少的味精。  
음식을 볶을 때 그는 기름을 많이 넣고 조미료도 제법 많이 넣었다.
- (e) 대상+放+개사구  
沒有法子，公使死了，責任全放在我身上，我得替他看着這這八個東西！  
어쩔 수 없지. 공사가 죽자 책임이 모두 나에게 놓였으니, 내가 그를 대신해 이 여덟 녀석들을 지켜야지.
- (f) V1+대상, 放+개사구/추향구  
說着，二人各抓了一把糖，恭恭敬敬地放在寫有《工人日報》字樣的大紅紙上。

말하면서, 두 사람은 각각 사탕을 한줌씩 쥐고서는 《工人日報》라는 글자가 쓰인 커다란 빨간색 종이 위에 공손하게 놓았다.

대부분의 문형에 개사구, 방향보어 등이 출현하고 있어서 이동의 출발지, 경로, 목적지 등 장소와 방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c)와 (d)처럼 장소와 방향을 나타내는 성분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를 통해 이동의 출발지, 경로, 목적지 등의 성분은 사역이동구문의 필수 출현 요소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역이동구문의 원형적 구성원으로 간주되는 ‘把’자문을 대상으로 하여 술어동사 중 사역이동동사가 어떠한 비율을 차지하는지 알아보고자 王朔 《浮出海面》에 쓰인 ‘把’자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조사 대상 ‘把’자문 전체 105개 가운데 77개는 이동(공간적, 비공간적 이동 모두 포함), 28개는 비이동이며, 이동을 나타내는 77개 중 60개에서 아래와 같은 사역이동동사들이 사용되었다.

取, 招, 挂, 帶, 揪, 擲, 倒, 扔, 塞, 送, 拉, 扭, 蕩(秋千), 打發, 交, 搭, 戴, 吐, 剝奪, 收回, 剝, 推, 傳, 趕, 摒除, 關, 拆, 拿, 甩, 停, 摟, 給, 散開, 摺, 沉, 領, 措, 揪, 泡, 拽, 噴, 絆, 拖, 撒<sup>17)</sup>

물론 이중에는 ‘打發’와 같이 행위자가 직접적으로 이동체에 힘을 가하여 이동을 이끌어내는 전형적 사역이동동사가 아닌 경우도 포함되어 있으며, ‘關(門)’과 같이 이동의 유형이 비전형적인 경우도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조사 대상 ‘把’자문의 50%를 넘는 문장에서 사역이동동사가 술어동사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사역이동동사가 ‘把’자문에서 가장 원형적인 동사라면 ‘把’자문의 기본의미 또한 단순한 ‘이동’이 아닌 ‘사역이동’으로 귀결되어야 할 것이다.(趙燕華 2011 참조) 이러한 특성은 ‘使’자문으로 이루어진 사역이동구문과의 대조 속에서 더 잘 드러나는데, cncorpus에서 추출한 ‘使’자용례 100개 중에서 사용된 114개의 ‘使’자문 가운데<sup>18)</sup> 23개(20.17%)만이 사

17) 보어, 개사구는 제외한 동사 원형만 나열하였다.

역이동을 나타내며, 예사역이동동사(9개, 예를 들어 ‘提高’ 등)가 사용되기도 하였고, 자발적 이동을 나타내는 일반적 이동동사(14개, 예를 들어 ‘走’, ‘走入’, ‘回到’ 등)가 사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23개의 예문이 모두 예외 없이 모두 추상적 이동을 나타내고 있었다.

## 6. 맺음말

중국어 사역이동구문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영어의 사역이동구문이 갖는 형식적 틀과 Goldberg의 분석방법론에만 치우쳐 중국어 사역이동구문의 개별적 특성이 간과된 측면이 있다. 본고에서는 사역의 틀, 이동의 틀에서 각각 사역이동구문의 특징을 살펴보고, 아울러 사역이동구문의 독립적 틀을 통해 이 구문의 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사역의 틀에서 보았을 때 사역이동구문은 유표지, 무표지 사역 형식을 모두 취할 수 있으며, 참여자는 2, 혹은 3이 된다. 또한 구체적 행위 동작을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이 원형적 사역자가 되며, 주로 [-유정성] 대상논항이 피사역자 겸 이동체가 되지만, ‘使’와 같은 사역표지를 취하는 경우 유정 개체가 피사역자 겸 이동체가 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역자가 유정개체이고, 사역이동동사가 주요술어가 되거나 ‘把’자문이 사용될 경우 행위성이 두드러지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사역이동구문의 결과성은 드러나지 않고 함의될 수도 있으며, 드러날 경우 주로 장소명사구, 장소나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구 등에 의해 표시된다.

또한 이동의 틀에서 보았을 때 이동체의 이동 방식에만 초점을 맞추어 <방식>요소에 포함된 <원인>요소를 분리해내지 못하는 맹점이 있으나, 인과연쇄

18) 검색 결과로 제시된 100개의 용례와, ‘使’자문의 개수 114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검색어 ‘使/V’의 검색 결과는 구두점을 기준으로 한 하나의 문장을 하나의 용례로 보여주기 때문인데, 복문 형태로 구성되어 실제로 한 문장에 여러 개의 ‘使’가 사용된 경우도 있어서 용례 수보다 ‘使’자문의 개수가 더 많다.

라는 전체적 틀을 적용하였을 때에는 이동을 유발하는 힘과, 그 힘이 행해지는 방식이 모두 원인으로 분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기존에 간과되었던 사역이동구문의 독립적 성격에 주목하고, 사역틀이나 이동사건틀만으로 분석할 수 없는 사역이동구문만의 특성을 찾아냈다. 이를 토대로 하여 앞으로 더 나아가 사역이동구문의 원형적 구성원과 주변적 구성원을 구분하고, 이들 사이의 인지적 관련성, 사역이동동사의 특성 등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할 것이다.

#### < 參考文獻 >

- 김경학, <사역이동 구문의 분석과 의미해석에 대해>, 《언어학》 제24호, 1999.
- \_\_\_\_\_, <행위동사, 완성동사 교체현상과 사건구조>, 《수원대학교 논문집》 제20집, 2002.
- 김동환, <혼성 이론에 입각한 영어의 사역이동 구문 연구>, 《현대영어문학》 19:1, 2001.
- 문귀선, 《형식의미론-이해 및 기초 과정》, 한신문화사, 1995.
- 임지룡, <한국어 이동 사건의 어휘화 양상>, 《현대문법연구》 20, 2000, 23-45.
- 조경환, <把字句와 使字句의 비대칭성 고찰>, 《중국어문학논집》 제62호, 2010, 81-101.
- 최규발·정지수, <코퍼스에 기반한 현대중국어 '氣得'구문의 사역성과 비사역성 시탐>, 《중국어문학논집》 제66호, 2011, 49-69.
- 陳俊芳, <單層構式語法框架下英漢典型致使移動構式的認知對比分析>, 《西安外國語大學學報》, 17:1, 2009.
- 陳俊芳, <現代漢語致使移動構式的認知分析>, 《中北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0, 97-104.
- 陳俊芳, <單層構式語法框架下英語典型致使移動構式的認知分析>, 《中北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1年 27:1, 2011.
- 潘艷艷·張輝, <英漢致使移動句式的認知對比研究>, 《外語學刊》 2005:3, 2005.
- 王桂林, <淺談致使移動句的認知>, 《雁北師範學院學報》 22:1, 2006.

- 吳建偉·張曉輝, <致使運動事件“把”字句構式的句法語義>, 《華東理工大學學報(社會科學版)》2010:1, 2010.
- 姚肖鶯, <漢語三種致使句的致使性等級考察>, 張旺熹 주연, 《漢語語法的認知與功能探索》, 世界圖書出版公司, 2007, 164-190.
- 葉向陽, <“把”字句的致使性解釋>, 《世界漢語教學》2004年第2期, 2004, 25-39
- 曾傳祿, <漢語位移事件與句法表達>, 《集美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12:3, 2009.
- 張伯江, <論“把”字句的句法語義>, 《語言研究》2000年第1期, 2000.
- 張輝, <語法整合與漢英致使移動的對比研究>, 《天津外國語學院學報》11:1, 2004.
- 趙燕華, <“把”字句研究新視角-“致使-位移”構式>, 《哈爾濱師範大學社會科學學報》, 2011年4期, 2011.
- Comrie.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2nd edi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9.
- Dowty. *Word meaning and Montague grammar : The Semantics of Verbs and Times in Generative Semantics and in Montague's PTQ*, Dordrecht, Boston : D. Reidel Publishing Company, 1979.
- Goldberg. *A Construction Grammar Approach to Argument Structur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5; 손영숙·정주리 옮김, 《구문문법》, 서울: 한국문화사, 2004.
- Goldberg & Jackendoff. The English Resultatives as a Family of Constructions. *Language* vol.80, 2004.
- Lakoff, George. *Women, fire, and dangerous things - What Categories Reveal about the Mind*,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7.
- Moreno. A Semantic Typology of Causative Accomplishment Movement Verbs and Their Argument-adjuncts in Role and Reference Grammar, *Atlantis* 26:2, 2004, 35-49
- Moreno. A Semantic Analysis of Causative Active Accomplishment Verbs of Movement, *SKY Journal of Linguistics* 18, 2005, 175-196.
- Radden & Dirven. *Cognitive English Grammar*, Amsterdam, Philadelphia: John Benjamin Publishing Company, 2007; 임지룡·윤희수 옮김, 《인지문법론》, 서울: 박이정, 2009.
- Talmy. Lexicalization Patterns: Semantic structure in lexical forms, in: T. Shopen(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Vol. 3:

*Grammatical Categories and the Lexic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5:57-149

Talmy. *Toward a Cognitive Semantics* vol.2,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2000.

北京大學中國語言學研究中心現代漢語語料庫([http://ccl.pku.edu.cn:8080/ccl\\_corpus/](http://ccl.pku.edu.cn:8080/ccl_corpus/))  
國家語委現代漢語語料庫(語料庫在線)(<http://www.cncorpus.org/>)

### < ABSTRACT >

This paper analyzed the causative nature and motion event nature of causative motion construction. But there are some causative motion sentences that the causee serve as subject, it cannot be analyzed by causative. And the motion event frame approach of Talmy(2000) can't explain properly why causative motion construction, its predicate is consisted of non-causative motion verb, e.g. CHUI-SAN(吹散), can be classified as the causative motion. Therefore this paper argues that causative motion construction must be treated as independent construction.

Key words: construction, causative motion construction, motion event frame, causative construction, SHI(使)-construction, BA(把)-construction, construction grammar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3. 9. 30.	2013. 11. 4.	2013. 11. 23.	2013. 11. 26.	2013. 11. 30.